



國立公園에 대한 인식 提高돼야

—공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계도활동 중점—

對談：鄭好根 企劃理事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위해 전문인력양성에 노력 기울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에 있어서 유일한 전문관리기관으로서 앞으로의 공원관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자연풍경지로서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해야함은 물론,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므로 이를 잘 관리·운영하는 것이 우리공단의 소임입니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크게 나누어서 자연자원의 관리, 탐방객의 관리, 시설물의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연자원의 관리면에서는 종전의 소극적인 관리방법에서 탈피하여 훼손되어가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공원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홍보, 안내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면에서는 현재 주차장, 야영장, 숙박시설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므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 정비하여 탐방객의 불편을 덜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전문관리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므로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자연자원 보호위해 일부지역 야영금지 및 등산로 폐쇄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바위, 식생,



▲ 공원관리방향을 제시하는 鄭好根이사(中央)와 任忠植운영부장(右)

계곡등 자연자원이 형상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최근에는 탐방객의 과밀한 이용으로 등산로 등의 훼손이 많이 있는줄 아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이런 자연휴식년제 및 취사야영금지 제도를 시행한후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도 동기대비 20%정도 감소추세에 있고, 산행시 도시락을 지참하는 탐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쓰레기 되가져 오기에도 참여의식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아직도 단속의 눈을 피하여 취사와 야영을 하고, 통제 등산로를 산행하는 탐방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국민의식이 아쉬운 실정이며, 모든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등산로의 과밀한 이용과 취사·야영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계곡 주위가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90.11.15부터 공원에서는 취사·야영금지 조치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11.15일부터 공원에서는 야영장, 산장등 허용된 지역외에서는 취사와 야영이 전

공원별 통제구간 및 기간

공 원 명	통 제 등 산 로 지 역	기 간
계	14개 공원 30개소	3년
지 리 산	노고단산장-노고단정상(3.7km) 피아골산장-노고단산장(7.0km) 노고단산장-심원(4.0km) 반야봉-심원(10km) 백무동-춧대봉(10km)	3년 〃 〃 〃 〃
계 룡 산	연애골-연천봉(2.0km) 하대-연천봉(1.0km) 고왕암-연천봉(2.0km) 좌암교-도덕봉(2.0km)	〃 〃 〃 〃
설 악 산	한계령-중청봉(7.5km) 권금성-대청봉(8.0km) 남교리-장수대(9.8km) 백담산장-장수대(9.8km) 미시령-마등령(7.5km)	〃 〃 〃 〃 〃
속 리 산	상오리-비로봉(3.9km)	〃
한 라 산	서북벽입구-정상(1.3km) 관음사코스정상-서측남벽 정상(1.0km) 백록담분화구내(0.3km)	〃 〃 〃
소 백 산	국망봉-구인사(8.0km)	〃
내 장 산	원적암-망해봉(2.0km)	〃
덕 유 산	철연개곡입구-동업령삼거리(6.0km)	〃
오 대 산	두로봉-동대산(7.0km) 비로봉-호령봉(4.0km)	〃 〃
치 악 산	세림폭포-비로봉(2.7km)	〃
월 악 산	월광폭포입구-월광폭포삼거리(2.0km)	〃
북 한 산	정릉-칼바위능성(2.9km) 중성문-대성암(2.0km) 구기터널-삼지봉(비봉)(2.0km)	〃 〃 〃
월 출 산	무위사-갈대밭(2.0km)	〃
변 산 반 도	거석-개암사(4.0km)	〃

시행일 : '91. 1.1부터

면 금지되고 있으며, 훼손이 심각한 등산로에 대하여는 '91.1.1부터 '93.12.31까지 3년간 등산로를 폐쇄하여 원상을 회복토록 할 것입니다.

성수기 유명국립공원 입장정원제 도입 검토

-성수기 유명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일시적인

과다한 탐방객의 운집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요?

▲ 좋은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원을 찾을때 불편을 느끼게 되는 주요원인은 탐방객의

공원별 취사 및 야영행위 규제내용

공 원 명	규 제 내 용	허 용 장 소	
		야 영 장	산장, 대피소
북 한 산	전면금지		
한 라 산	〃		
변 산 반 도 (산악지역)	〃		
계 룡 산	지정야영장에서만 이용 허용	동학사지구, 갑사	
치 악 산	〃	대곡교	
주 왕 산	〃	상의리	
속 리 산	〃	사내리	
가 야 산	〃	백운동	
월 악 산	〃	덕주골(간이)	
내 장 산	〃	내장 및 제1,2,3 야영장	
월 출 산	〃	천왕사지구	
소 백 산	〃	천동	
지 리 산	지정된 야영장, 산장, 대피 소에서만 허용	달궁, 황전, 노고단	뱀사골, 연하천, 노고단 피 아골, 장터목, 세석로타리
덕 유 산	〃	삼공리	향적봉
오 대 산	〃	동피골, 월정사, 소금강	진고개, 노인봉
설 악 산	〃	설악동, 오색	양폭, 희운각, 소청, 중청, 대청, 수림동, 백담

위반시 벌칙 : 구류 또는 과료(자연공원법 제60조) 10만원이하의 과태료(산림법 제125 조)

일시적인 집중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주차난, 숙박난이 그렇고, 화장실등 편의시설 부족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과 숙박시설등 공원편의시설들이 남아돌고 있으나 여름 휴가철등 성수기에는 모든 시설들이 수용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공원관리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과생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탐방객을 년중 골고루 탐방할 수 있도록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공원관리의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공원의 입장정원제 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1967년 국립공원 지정이래 현재까지 이런 제도를 시행한 예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시행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습

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간 공원내 쓰레기 2만4천여톤에 달해—건전한 국민의식 요청돼

—공원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공원내 쓰레기 처리문제는 공원관리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서 청소문제를 소홀히 하고서는 공원관리란 명분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년간 약 3천만명 정도

로 이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는 2만4천여톤(4톤트럭 6,000대분)에 달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만 명의 일용인부와 600여 전 관리사무소직원이 투입되어 당일 발생 쓰레기 당일수거 원칙아래 총력을 기울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인식아래 쓰레기 되가져오기에 동참하는 건전한 국민의 의식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인만큼 홍보·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입니다.

무리한 산행과 경험부족이 안전사고의 대부분, 탐방객 스스로 안전사고예방에 주의 기울여야

— 전국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 공원관리에 있어서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8개 국립공원의 위험지역에 안내판 570개, 경고판 347개, 철책 128개소, 교량 18개소를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있으며, 전 등산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지역을 보수하고 폭설, 폭우, 태풍 등 기상 악천후시에는 입산통제와 아울러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대피소와 관리사무소는 비상근무를 하며, 전문구조요원 937명(79개대)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90.7월부터 헬기1대를 구입, 구조활동에 투입하는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90년에 42명, 금년에도 사망 40명, 부상 10명이나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대부분 무리한 산행을 감행하거나, 수영미숙등 경험이 부족한데서 오는 사고이므로, 현지 공원관리사무소의 안내나 통제에 협조해 주시고, 탐방객 각자가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구역내 위법행위 근절기 위해 정기순찰강화 및 홍보계도활동 지속적 전개

— 잘 보존되어야 할 국립공원이 위법시설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 그동안 우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내 위법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국민휴식공간 확보와 위법행위 근

절을 통하여 국민생활 환경보호와 범질서 확립으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89.7.1부터 18개 국립공원에 대한 위법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던바 영구건축물 297건, 가설물 918건, 공작물 1,078건, 형질변경등 26건, 총 2,31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91.9.30 현재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650건을 정비하였으며, 양성화 10건, 강제철거 480건등 도합 1,231건을 정비, 공원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조치된 1,088건은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원구역내의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는 관할구역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또는 정기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특히, 상행위자에게는 허용행위와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원질서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인식제고와 모든 국민이 공원을 내집 정원같이

— 끝으로 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국립공원을 유원지나 국민관광지로 알고 무단야영, 음주, 고성방가등 자연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지금과 같이 자연환경의 훼손과 오염이 심하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국립공원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홍보 계도사업을 더욱 확충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제도나 일부 특정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원을 찾는 모든 국민이 내집 정원같이 가꾸고 보살필 때만이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가꿔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는 비지터센터의 확충 및 특산품을 전시하여 자연학습의 효과와 홍보 계도활동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개념 정립을 기대해 볼 것을 다짐했다.

〈崔鎮燮 本會研究委員記〉

第1次 公團자문위원회 개최

위원장에 李一球박사 선임

지난 6월26일 오전11시 국립공원관리공단회의실에서 李錫胤이사장을 비롯한 전임원과 부·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월10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바 있는 각계인사 17인을 초청, 제1회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李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李昌憲기획부장의 현황과 당면주요관리문제 등의 설명이 있었으며 자문위원들과의 상견례도 있었다. 이날 회의서는 자문위원들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체제를 위해 李一球博士(前한국식물학회회장·한국생태학 회장·문화재위원·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립공원 야간등반제한

—지리산·계룡산·설악산등 15개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5조4호,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야간등반에 따른 탐방객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훼손방지 와 산화예방을 목적으로 오는 11월15일부터 국립공원의 야간등반을 금지한다.

이번에 야간등반 금지되는 국립공원은 다음과 같다.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해상지역제외)

한편 야간등반을 해야할 특수한 경우 관리소 또는 매표소에 신고후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국립공원 청소원인자 출연금 납부현황

—동양맥주, 롯데칠성, 진로등 37개업체서 4억3백49 만원 납부—

자연공원법 제49조의15및 시행령 제29조의13규정에 의거 공원내에서 폐기물을 발생하는 주류 청량음료, 기타식료품의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수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의 1/2이내에서 출연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해(90년) 공원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청소원인자인 해당업체 37개(주류8, 청량음료 11, 기타식료품18)에서 적극 참여하여 출연금을 전

액납부하였는데 업체별 납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업체별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업 체 별	출연요청액	납부금액
37	계	403,490	403,490
1	동양맥주(주)	52,897	52,897
2	롯데칠성음료(주)	50,000	50,000
3	(주)진 로	38,510	38,510
4	조선맥주(주)	31,199	31,199
5	두산식품(주)	27,527	27,527
6	(주)일 화	26,314	26,314
7	해태음료(주)	15,566	15,566
8	우성식품(주)	14,083	14,083
9	보해양조(주)	11,556	11,556
10	범양식품(주)	13,982	13,982
11	(주)농 심	10,870	10,870
12	호남식품(주)	10,680	10,680
13	롯데제과(주)	9,579	9,579
14	(주)금복주	8,794	8,794
15	무학주조(주)	8,187	8,187
16	해태제과(주)	7,888	7,888
17	(주)보 배	6,806	6,806
18	동아식품(주)	5,829	5,829
19	삼양식품공업(주)	5,605	5,605
20	동양제과(주)	5,532	5,532
21	대선주조(주)	5,155	5,155
22	경월주조(주)	5,054	5,054
23	(주)빙그레	4,074	4,074
24	크라온제과(주)	3,974	3,974
25	선양주조(주)	3,302	3,302
26	매일유업(주)	3,109	3,109
27	동원산업(주)	3,042	3,042
28	남양유업(주)	2,523	2,523
29	오뚜기라면(주)	2,123	2,123
30	서주유유(주)	1,503	1,503
31	충북소주합동제조장	1,483	1,483
32	동서식품(주)	1,431	1,431
33	(주)비 락	1,425	1,425
34	사조산업(주)	1,391	1,391
35	(주)정식품	1,032	1,032
36	(주)고 제	806	806
37	오양수산(주)	659	659